

골롬반 선교

2024 여름 + 가을

val.128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선교 사명은

모든 이를 당신께 이끄시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24년 전교 주일 담화문



세계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총장과 참사단, 그리고
1월에 선출된 평신도선교사 리더십 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Let's celebrate! 축제로구나!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 한국지부장



본회 세계 총회가 페루 리마에서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를 시작으로 개막해 주님의 은총 속에 한 달간 여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총장을 비롯하여 각 지역 대표가 한데 모여 지난 6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6년을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 대표는 나이, 국적, 현재 활동하는 선교지 등등, 그 면면이 무척 다양했습니다. 물론 회의 같은 공식 행사는 영어로만 진행했지만, 그 외 자리에서는 국적이 다양했던 만큼 다양한 언어로 소통했고, 처음 들어본 언어들을 접하는 좋은 기회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또한 골롬반회 선교사로서 사는 삶의 매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언어를 접하며 사용하다 보면 종종 번역이 잘되지 않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몇 해 전부터 저를 곤혹스럽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셀러브레이트 Celebrate”입니다. 사전에서 Celebrate는 “기념하다, 축하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인데, 영어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은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이 단어를 쓰고 있고, 한국어로 온전히 번역하

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인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셀러브레이트는 자기 문화와 언어를 떠나 기쁜 소식을 경축하며 증거하는 외방 선교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영향을 주는 낱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것이므로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셀러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색하고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미사를 집전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미사를 풍요롭게 경축하다”라고 하면 더욱 가슴에 꽂히고 와닿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셀러브레이트를 사전에 나오는 일반적 의미로 쓰기보다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더욱 풍요롭게 기념하고 경축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일상은 더욱 풍요로운 축제의 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흘러넘치게 되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삶으로 하느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느님의 뜻, 바로 풍요로움과 기쁨이 아닐까요?

4주 간의 리마 세계 총회 여정은 회의의 연속이었지만 하루하루가 과거와 지금 그리고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시간이었고, 하느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나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선교 사명은 우리의 삶에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이와 함께 하느님의 뜻이 더욱 풍요롭게 흘러넘치도록 함께 경축하는 것이 아닐까요?

6월 29일, 한국지부에 세 명의 부제 탄생으로 축제의 기쁨을 풍요롭게 경축하였습니다. 이번 한가위가 부제들로 인해 더욱 풍요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선교회의 이러한 풍요로움과 기쁨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또, 11월에 세 부제의 사제서품식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느님 뜻에 맞는 선교사제로 거듭나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는 축제의 장, 사제서품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Let's celebrate! ✠

- 02 마음을 여는 글 | 서경희 스테파노 축제로구나!
- 시노달리타스, 선교-사명 |
- 04 안드레이 파즈 함께 걸어갑시다
- 07 오기백 다니엘 역사 속 골롬반 총회
- 10 『골롬반선교』 편집실 세계 총회 여정과 함께하신 성령님
- 12 배민수 켈빈 미래의 골롬반 선교
- 14 축하합니다 | 부제수품을 축하합니다
- 16 미안마 이야기 | 손선영 카타리나 일상을 지키는 이들과 함께
- 18 권은정이 만난 선교사 | 제주 노아곱 신부 편 선교하는 기쁨
- 22 성소 이야기 | 동리춘 베드로 기쁨의 원천
- 24 피지 이야기 | 정의균 가롤로 하느님의 일
- 26 신학원 | 이정락 베라노 무지개 길 여정
- 28 추모 | 시드니 한인천주교회 그리운 흥 야고보 신부님
- 30 후원회
- 32 골롬반 소식



시노달리타스, 선교-사명



함께 걸어갑시다

: 2024년 세계 총회 폐막 미사 신임 총장 강론

안드레이 파즈 신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히브 4:7). 이번 총회 내내 이 말씀은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개방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총 안에서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 경청하면서 깊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은 두려움, 불안,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동시에 각자의 체험과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고, 새로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 그분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우신 분은 성령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교 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오로에게는 급진적이고도 대담한 내적 외적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라는 성령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자신만의 방식과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서로의 약함을 인정

하고 상호 신뢰의 재구축을 강하게 이루며, 선교사로서 개방적인 자세를 지니고 하느님 뜻을 이행하는 데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기를 요구합니다.

시노달리타스(함께 걸어가서 여정) 정신 안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골롬반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미래, 하느님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바오로의 선교 여정을 인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선교 여정을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면서 골롬반회가 처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격려하시고, 여러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 굳셈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안드레이 파즈**
Andrei Paz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 출신으로 2009년에 사제품을 받고 대만과 중국에서 활동했다.
이번 세계 총회에 중국 골롬반회 대표로 참석하였다가 본회 역사상 첫 아시아인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정을 할 때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함께 걸으며 일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지하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상황들과 박해의 위협에 직면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우리에게 사도 바오로가 지녔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로서 우리는 현재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변함없이 같은 사목을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계가 우리 바람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의 꿈이 아무리 이상적이고 동기가 아무리 고귀할지라도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우리 선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하느님의 육화는 고통받는 세상과 상처 입은 지구에서 끊임없이 외쳐지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안에 참여해야 합니다.

총회 참가자들은 이를 인지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같이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려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급진적이고도 대담한 변화를 겪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계속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 총회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새롭고도 신비로운 일을 하고 계시며, 골롬반 공동체가 시노달리타스를 깊이 이해하면서 이 도전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향해 함께 일하며 성령의 음성에서 더 깊이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들과 우리 자신에게도 눈을 감거나 귀를 닫고, 그러한 자신에게 익숙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정신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세계 총회 폐막 미사를 마치고





◀ 선교를 떠나는 성 골롬반과 그의 동료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 내
성 골롬반 경당의 성화이다.



시노달리타스, 선교-사명

역사 속 골롬반 총회

오기백 다니엘 신부



복음 속 바르티매오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약함에 맞섰습니다. 용기는 신앙의 행위이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앞에 놓인 수렁을 보게 합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바르티매오를 통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거나 개인적인 변화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치유를 얻지 못할뿐더러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 자유와 헌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작업 치료학(안드레이 파즈 신부는 작업 치료학 박사이다.-편집자 주) 마지막 학기에 저는 사례 연구 대상인 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호스피스 치료를 1년 넘게 받던 분인데 항상 화가 나 있었고 왜 하느님이 자신을 벌주시는지 계속 의문을 품었습니다. 또, 요양 시설 내 정원을 즐기는 그런 활동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 느꼈고, 저와 함께하는 치료 도움에도 참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늘 반복하는 말은 그저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둬”였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과 여정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말기 상태일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분은 저와의 치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을 방해했던 장애물에서 자유로워졌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남은 날을 최대한 충만하게 살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졸업 후에 병문안을 다시 갔을 때 병실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간호사들이 저더

러 정원에서 찾아보라고 했고,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며 만족스럽게 서 계신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아마도 그 환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았던 많은 장애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깊은 소명은 각 개인과 성골롬반외방선교회가 세웠던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에 맞게 봉사하는 것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성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계획이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헌신, 공동체의 믿음,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노력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오로 사도와 바르티매오처럼 하느님의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 회심, 개혁은 결코 쉽지 않지만, 상호 격려와 지지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우리와 교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사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길을 발견하고, 골롬반 가족으로서 서로 함께 걸으며, 보편 교회와 함께 여정을 나누어 모든 인류와 피조물과의 친교를 강화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

1918년, 본회 창립자들이 품은 비전은 신자들의 지원을 받아 아일랜드에서 신학교를 설립해, 중국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0여 년간 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오늘날 골롬반회는 다양한 문화 출신 회원들이 15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화는 역대 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짧은 글에서는 이러한 주요 결정 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

1919년에 열린 첫 번째 총회는 회원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장상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초대 총장으로 공동 창설자 존 블로워 신부와 3인의 참사를 뽑았다. 이렇게 구성된 지도부는 합의체로서 일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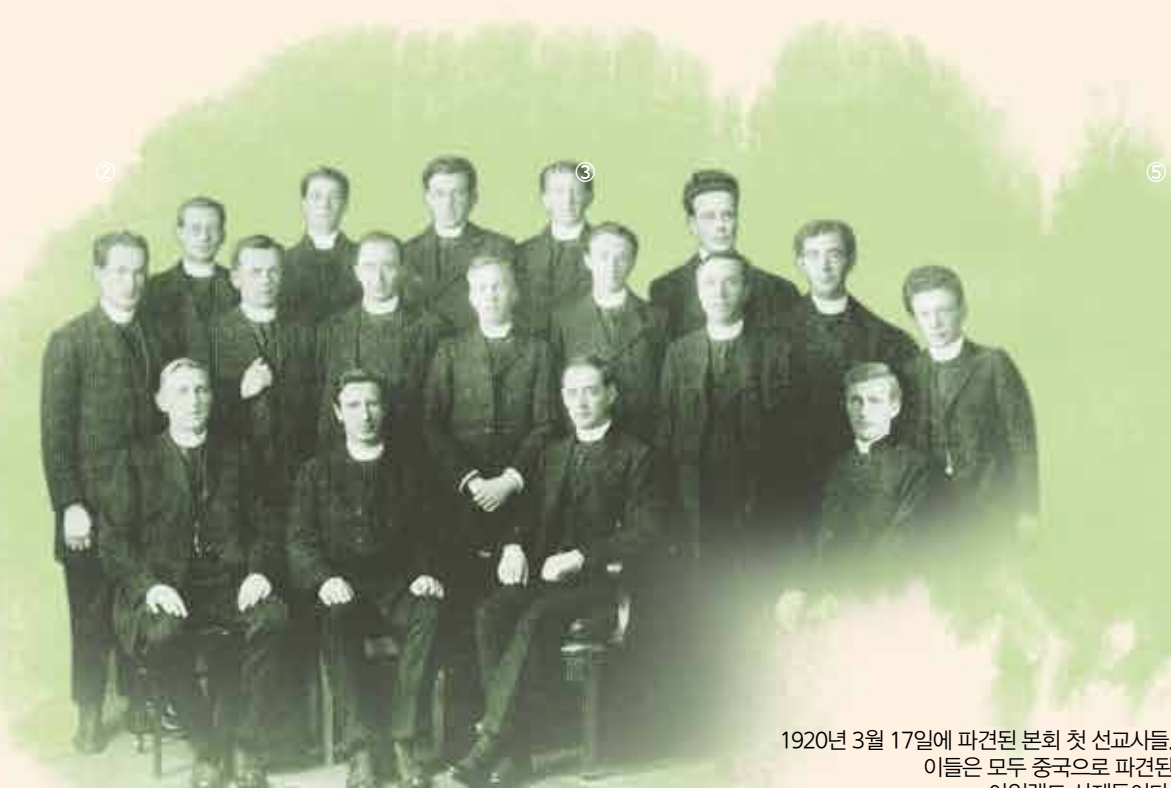
막상 일을 해보니 사안에 따라 의견이 갈려 결정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본회의 선교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미국, 뉴질랜드, 호주로 본회가 급속히 확장하면서 각 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중국에서는 성당과 학교를 세우고 본당에 전교회장들을 고용했다. 공동 창설자이자 중국에서 활동하던 에드워드 갈빈 신부(훗날 주교)는 신학교를 중국에 설립하여 골롬반회를 위한 신학생들을 받아들이자고 강하게 제안했다. 아일랜드 선교회의 원래 꿈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4년에 열린 차기 세계 총회는 총장에게 큰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고 마이클 오드와이어 신부를 2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새 총장은 급속한 확장세로 본회 재정 부채가 크게 증가한 현실을 깨닫고 엄격한 예산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골롬반 신학생들을 위한 중국 신학교를 세우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했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불러 모금 운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1931년 총회는 중국 이외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중국 내 선교를 지원하는 거점이었던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견했고, 1933년에 한국, 1936년에는 미얀마에 본회가 진출했다. 그 후 30년 동안 피지-남미 등지로 새로운 파견이 이루어

오기백 다니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이며 1975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그해 한국에 왔다. 광주대학교 휴산·목포 연동에서 본당사목을 했고, 이후 인천교구 노동사목, 서울대학교 도시빈민사목을 하였다. 한국지부장과 신학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지부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1920년 3월 17일에 파견된 본회 첫 선교사들.
이들은 모두 중국으로 파견된
아일랜드 사제들이다.

졌다. 그러나 1947년, 1952년, 1962년 총회에서는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다. 본회의 에너지는 중국, 한국, 필리핀, 미얀마에서 일어난 전쟁이 끼친 영향에 대응하는 데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분위기를 반영한 1970년 총회는 새로운 변화를 촉구했다. 모든 골롬반인에게 공의회에서 도입한 새로운 사도직에 응답하도록 쇄신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이 총회에 참석한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대표는 지역교회의 선교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본회가 활동하는 모든 나라에서 성소자를 모집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본회 지도부는 이 제안에 관하여 모든 회원과 상의하기로 했다. 그리

고 이 총회에서 미국 출신 리처드 슈타인힐버 신부가 아일랜드인이 아닌 첫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1976년에는 필리핀 바기오에서 총회가 열렸다. 지난 몇 년간 쇄신과 변화 과정을 걸어온 참석자들은 선교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총회는 “골롬반 선교의 필수적 과제는 우리가 활동하는 나라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완전하고도 전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장려하고, 파키스탄과 대만에서 새 선교 지역을 개설하기로 했다. 총회는 또한 우리와 함께 선교사로 활동할 뜻있는 평신도를 초대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골롬반 신학생들의 해외선교 실습을 신설했다.



2024년 페루 리마 세계 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한
각국 골롬반회 대표와 평신도선교사 리더십 팀이다.
100년 전과 달라진 골롬반회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사진이다.

“총회는 특별한 은총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사도적 방법을 개정하며, 우리의 삶을 복음에 비추어 재검토하게 됩니다.” - 신오복 안토니오 신부(한국 선교, 1976-1982 총장, 1976년 필리핀 세계 총회 결의문에서)

1970년 총회 때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이 요청한 내용에 대한 본회 전반의 식별에 따라, 1982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총회는 우리가 활동하는 국가에 골롬반 사제 양성 프로그램과 평신도선교사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1988년 한국-1994년 칠레-2000년 호주-2006년 아일랜드-2012년 미

국-2018년 대만에서 열린 총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선교 방향을 지지하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2024년, 페루 리마 총회에서 필리핀 출신 안드레이 파즈Andrei Paz 신부가 총장으로 뽑혔다. 호주 출신 피터 오닐Peter O'Neill 신부, 한국인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 페루 사람 살루스티노 몬드라곤Salustino V. Mondragon 신부가 중앙 참사로 선출되었다. 이 지도부에 아일랜드 회원이 없다! 골롬반회는 이제 존 블로워와 에드워드 갈빈이 중국에서 일할 아일랜드 사제들의 회를 창립했을 때 구상했던 회와는 매우 다른 회가 되었다! 

세계 총회 여정과 함께하신 성령님

현지 인터뷰: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 정리: 『골롬반선교』 편집실

“

세계 총회가 성령 강림 대축일, 페루 리마에서 개막해 6월 14일 폐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노달리타스 여정에 발맞춰 본회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경청하며 오랜 기간 총회를 준비했고, 그 열매를 본 한 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는 예전과 전혀 다른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더 깊이, 더 아래로, 더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선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가까이 마주하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의 나눔을 통해 이 여정을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역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코네티 알로 신부

아일랜드 출신, 중국·미얀마·태국에서 선교

저의 첫 총회는 1970년 총회 때 간사로서 참석했을 때입니다. 당시 총회는 우리 회원들로 조직되어 진행되었고, 매우 고전적인 의회식 토론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총회는 전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대립시키기보다는,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고 포용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감정도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이, 경험, 국적 등 장벽을 허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총회에 참가한 골롬반 선교사들과 외부 전문가들



다니엘 오코너 신부

뉴질랜드 출신, 파키스탄에서 선교

새로운 총회 운영 방법은 훌륭한 진행자(외부 전문가-편집자 주)들 덕분에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에 관하여, 논의할 사항들에 관하여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면서요, 이 과정 안에 성령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

한국 출신, 미얀마에서 선교

서로 비난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청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이 좋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미얀마에 돌아가서 이러한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해 봐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쉐 로 카필리 선교사

필리핀 출신, 대만에서 선교, 평신도선교사 중앙 코디네이터

평신도선교사들과 동료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비공식 투표에도 참여하게 되어서 이번 총회가 매우 포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의에 포함되어 있고 제 목소리도 중요하게 들리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사제 회원들이 새로운 방식의 총회에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니스 카터 신부

영국 출신, 파키스탄과 영국에서 선교

개인적으로 이번 총회의 새로운 방법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회의 진행 과정이 너무 느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상 저는 어떤 문제를 보면, 바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총회의 새로운 방법은 과정이 너무 길어서 답답하지만, 저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토마스 오라일리 신부

아일랜드 출신, 파키스탄과 영국에서 선교, 최고령(80세) 참석자

기도와 성찰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서 좋습니다. 총회 준비부터 나누었던 우리 회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총회에서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하도록 통합되었다는 점도 아주 기쁩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감에 있어 우리가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식별하여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살루스티노 몬드라곤 신부

페루 출신, 대만에서 선교, 최연소(37세) 총회 참가자

대개 보면, 경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더 쉽게 잘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의견과 아이디어가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없거나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총회의 새로운 진행 방식은 만족스럽습니다.



마틴 코로이디리 신부

피지 출신, 칠레에서 선교

이번 총회는 제게 골롬반 선교의 더 넓은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지부의 관심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선교하는 하나의 단체로서 골롬반회가 하느님의 선교를 어떻게 가장 잘 실천해 나갈지 고민하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성령과 함께 일하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회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기를 성령님께 청합니다. ✠



미래의 골롬반 선교

배민수 켈빈 신부

최근에 저는 체코 신학자 토마스 할릭이 그의 저서 『그리스도교의 오후』에서 묘사한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여러 단계를 하루에 비유하여 표현했습니다. 아침은 자유롭고 활기차며 흥미진진한 시기를, 정오는 중년의 위기, 즉 태양 열기가 뜨거워지므로 혼란이 지배하며 위기가 넘치는 시기를, 오후의 서늘함은 성숙해 가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뜻합니다. 이 성찰적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때때로 급진적으로 인생 방향에 변화가 이루어 집니다. 저녁은 이러한 지혜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날을 위해 그동안 얻었던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새벽의 밝은 별에 의해 예고됩니다.

할릭은 그리스도교와 관련하여 겉으로 보이는 영광과 성공의 시기를 거친 후, 최근에는 많은 위기가 뒤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이제 더 성숙한 성찰의 시기인 '오후'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 성찰의 시기는 정체되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노드 공동합의성을 통해 교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무언가로의 전환을 알리는 것입니다.

선교회로서 우리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계에

놓였습니다. 이는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초기 60~70년(골롬반회의 아침)은 번영의 시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역경에도 선교 과업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소자들이 넘쳐났고 선교 사업은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선교 사목'의 범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었고, 동시에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선교 방향이 생기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교 사목에 대한 이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회원 수는 감소했습니다. 회원들의 피로도는 심해져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 열기 때문에 지쳐버린 우리의 공동체적 위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대처하려는 여러 시도 끝에 마침내 우리는 골롬반회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총회 준비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배민수 켈빈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호주 출신이며, 1969년에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으로 왔다. 강원도 삼척 성내동·영월, 서울 등촌1동과 가양동 공소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1992년부터는 주로 양성자로서 활동하였는데, 신학원 원장, 부원장, 영성의 해를 맡았고, 8년 동안 평신도선교사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다. 2017년부터 본국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은 우리가 이제 '오후' 단계로 넘어갔음을 나타냅니다. 즉,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식별하면서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더 깊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릭의 '성찰'이라는 단어에 '경청'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마음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역동성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공합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서 벗어난 '오후'의 고요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 선교회를 위한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종의 공동체적 희망입니다. 이러한 희망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리라는 희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여정에 참여해야 함을 공감했습니다. 이 여정은 '그들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세대, 아니 '새로운 세대'가 우리 선교회

를 이끌고 갈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리더십으로 나아가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회원이 동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기성세대가 그 공간을 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적인 부분과 다양한 선교 사목 중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그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선교회의 규모와 사명에 더 적합한 구조를 도입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의 결속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은 이루어진 결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 결속을 이루려면 일부 '내려놓음'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내려놓음 자체가 일종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런 우리 회원들의 주인 의식은 앞으로 다가올 열기 속에서 선교의 짐을 짊어질 이들에게 힘과 희망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배민수 신부가 골롬반회 회보 『인터컴INTERCOM』(2024년 봄호)에 기고한 글을 번역했습니다. ✠



“부제수품을 축하합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자 골롬반회 창립기념일인 6월 29일, 서울대교구 돈암동성당에서 교구 총대리 구요비 읍 주교의 주례로 분회 부제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수품자는 박요섭 요셉 부제(수원교구 분당성요한성당), 성요섭 요셉 부제(의정부교구 일산성당), 심홍석 암브로시오 부제(인천교구 부평4동)입니다.

세 부제는 서품식 전날 한국지부 본부에서 종신서약을 하였으며, 11월 15일에 있을 사제서품식을 앞두고 각 본당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양성을 받는 동안 기도와 도움을 주신 후원회원을 비롯한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제서품식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왼쪽부터 심홍석 암브로시오·성요섭 요셉·박요섭 요셉 부제

선교하는 기쁨

| 제주 노아곶 신부 편 |

권은정 유스티나 루이제



1934년 봄, 한국에 온 지 반년도 안 된 골롬반회 신부 4명이 제주에 도착했다. 그 이후 그들은 줄곧 하나님의 발을 성실히 일구는 일꾼으로 제주 선교 역사 속으로 스며들었다.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걸음을 오늘에 이어가고 있는 노아곶 신부는 저 유명한 용두암이 바로 보이는 제주 <골롬반 사제관>의 주인장이다. 널

찍한 정원에는 야자수가 시원하게 솟아있고 주홍빛 한련화가 어여쁘게 피어 있었다. 노 신부의 고향 아일랜드에서도 피는 꽃이다.

그가 십여 년간 살았던 전남 장성을 떠나 제주에 다시 온 지 2년 되었다. 한참 전에 서귀포 본당에서 사

권은정
전문 인터뷰어이자 번역가, 작가이다. 한겨레신문 해외통신원, 국무총리실 홍보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윤공회 대주교의 북한 교회 이야기』, 『불꽃이 향기가 되어』 등 인터뷰, 구술 책을 작업했고, 신문과 잡지에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



사제관 마당의 꽃 식구들. 노아곶 신부는 젊은 시절부터 머무는 곳마다 꽃과 나무들을 심는다.

목한 적이 있다. 여든 중반에 들어선 노 신부는 은퇴 이후 장성에 살 때 자신이 ‘땀장이’로 지낸다고 했다. 따로 책임지는 본당이나 공동체가 없으니 병원, 이주민, 수녀회를 위해 때맞춰 미사를 하며 지낸다는 말이 었다. 요즘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근처 본당에서 평일미사를 맡고 있고 양로원을 방문하거나 이주민 미사, 신자들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다.

스물여섯이던 1964년 한국에 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변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라틴어 미사가 지역 언어로 바뀐 게 이듬해부터였다. 당시 한국은 참으로 가난했고 불안정했다. 그의 눈에 잡힌 첫 장면은 태풍이 쓸고 간 황량한 별판이었다. 하지만 그를 반기는 신자들의 눈빛은 더없이 맑고 순수했으며 신앙심은 뜨거웠다. 아곶 신부는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광주대교구 계림동 보좌로 있다가 흑산도 주임으로 갔다. 서해가 온통 그의 책임이었다.

“객선이라고 해요. 배를 타고 선교하는 것이요. 성탄 부활 때 섬 공소를 다니다 보면 어느새 일 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때 추억을 떠올린 것일까. 아주 짧게 미소를 짓는 듯했다. 반세기 넘는 세월을 몇 마디 말이나 기억의 편

린으로 표현해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주름진 얼굴과 눈빛, 전혀 낯설지 않은 몸짓으로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정성껏 지내왔는지 읽어낼 수 있다. 그는 전라도와 강원도를 오가며 사목했다.

“내가 여러 곳을 다녔네요. 전남 노안은 농촌, 목포는 바닷가 어촌, 강원도 사북은 탄광촌, 서귀포는 관광촌, 인천에서도 있었고요. 이만 하면 안 가본 곳이 없는 거지요?”

노안에서는 중학교 교장으로 지내며 청소년들을 길러냈다. 본당 시절 노 신부와 신자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다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 사진 속으로 들어가 옆에 서고 싶은 마음이다. 60여 년 사목 현장을 지키면서 그는 한국의 변화와 발전을 신자들과 함께 겪어 왔다. 사북항쟁 때 그는 원주교구 사북성당 주임이 었다.

“광부들은 아주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예요. 다들 어려운 형편으로 그곳까지 온 사람들이었어요. 사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은 나와 안 맞아요. 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더 좋거든요.”

노 신부는 능숙한 전라도 사투리에다 제주 방언까



서귀포 본당에서
골롬반 후원회 미사를
집전하는 노아곱 신부

지 아주 두루 섭렵했다. 『전라남도 순교 역사』를 집필할 만큼 한국 교회사, 한국 역사에도 밝다. 그는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데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나이 육십 넘어 칠레 선교(한인 교포사목)를 나가서 6년을 지내고 돌아왔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말을 익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선교지로 나가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또, 선교사의 여정은 외딴곳, 하느님의 말씀이 씨앗 내리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한다. 신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장성 동네에서 그는 십여 년 넘게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한 채 왜 농촌 마을에 와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한다. 노인회 이웃이 상을 당했을 때 조급금 봉투를 챙겨 갔더니 서양 사람이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며 놀랐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친구님”이라고 부르며 술잔을 권했다.

“나는 그 소리가 아주 좋았어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나 말고 아무도 없었는데 나중에 교우 한 가정이 이사 왔지요.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갈만한 사람이 이 늙은 신부 말고 없었을까?”

병자성사를 주기 위해 길도 없는 눈밭을 수십 리 걸어가던 옛날 선교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안다. 지금의 선교는 그에게 생각거리를 많게 만든다.

“새로운 곳, 먼 선교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디든 기꺼이 떠나야 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우리는 사제관 뒷 마당 텃밭에서 감자를 캐다. 아일랜드 신부와 감자 캐기를 하다니! 19세기에 감자 대기근으로 국민 3분의 1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슬픈 역사를 그는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아니지! 감자알도 잘 챙겨야지! 작다고 버리면 안 되지!”



제주 골롬반 사제관 뒷마당에 노아곱 신부가 농사를 짓는다. 인터뷰하러 간 권은정 작가가 감자 캐기에 손을 보탰다.

돕겠다고 나선 굼뜰 일손에게 편잔을 준다. 텃밭에 무엇이든 심어 가꾸고 양봉까지도 하는 실력자인 그는 진짜 농부였다. 가시덤불 아래 버려진 말씀의 씨앗들도 그의 손을 거치면 분명 튼실한 뿌리를 내렸을 것이다.

“바오로 사도가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지요. 그 말 나도 그대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노력 아니고 하느님 덕분이지요. 내가 어떤 곳을 가든 거기 하느님이 계시니까 힘든

거 없어요.”

한국전쟁 당시 모두들 피신하라고 했을 때 골롬반 순교 사제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앞에, 내 뒤에 단 한 마리 양이 있는 한,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선교사의 삶은 그런 것이다. 내 앞에, 내 옆에 단 한 마리의 양이 살고 있다면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다. 은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노 신부는 ‘무엇을 하기’보다 ‘존재하는’ 이로서 있고자 한다. 무심히 그의 걸을 지나치던 어느 ‘외인’이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저이는 왜 고향을 떠나 이 머나먼 동쪽 나라(과 이스트 Far East)에 와서 살고 있나? 그리스도의 길이란 게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궁금증의 씨앗을 길옆에 뿌려놓는다면 선교사로서 노아곱 신부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 ✠

노아곱 신부는 전남 장성에 살 때부터 지금까지 장성성당에 가서 이주민들을 위한 영어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기쁨의 원천

동리춘 베드로 신부

저는 중국 지린성(길림성)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먹고 살기 위해 허베이성에서 온 이주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우리가 가진 것은 소박한 꿈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전부였지.”

세 살 터울 형과 저는 아버지께서 자주 해주셨던 성경 인물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인내, 욥이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 것에 감탄하셨지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인들과 마테오 리치 신부(이탈리아 출신으로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회원-편집자 주) 같은 선교사들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은 성인들의 모범

을 따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사셨고, 자녀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날을 갈망하며, 열심히 일한 손으로 소박하고 따뜻한 가정을 일구셨습니다!

제가 성골롬반외방선교회를 처음 접한 건 2009년 허베이성 스자좡 신학교 2학년 재학 때입니다. 동기 신학생이 외국인 사제를 마중하러 가니 기차역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골롬반회 회원은 당시 중국

동리춘 베드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9년 1월, 본회 창설 100년 만에 중국인 최초로 사제품을 받았고 현재도 유일한 중국인 회원이다.
2020년 가을,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현재 재한 중국인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리춘 신부는 매 1~3주일 아침 9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소성당에서 중국어 미사를 봉헌한다.



필자(왼쪽)가 3살 무렵 찍은 가족 사진



2012년 필자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가정방문을 온 케빈 오닐 신부와 함께

에서 성소자를 찾고 있던 케빈 오닐 신부님이었습니다 (2012년~2018년 본회 총장 역임). 그 만남 이후, 케빈 신부님의 초대를 받아 동기 신학생들과 영적 동반 모임에 참석했고, 꾸준한 만남과 친교를 쌓으며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 저는 2011년에 신학교를 졸업한 후 우한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골롬반 선교사들과 함께 살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느라 고생하는 저를 선교사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조 휴스턴 신부님은 영어 수업이 끝난 후에 숙제도 세심하게 봐주시고 집중 훈련도 해주셨습니다.

2019년에 서품을 받고, 2020년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언어 공부에 들어가야 했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여서 등록했던 학교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어학당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언어를 배우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골롬반 공동체는 이런 저를 위하여 과의 선생님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박물관, 고궁, 명소에 저를 데려갔고,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풍습 등을 알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긴장하고 불안했던 제 마음이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중 수교(1991년) 이후 중국인 성직자들이 한국의

로 유학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사는 중국인 평신도들과 작은 모임과 활동이 있었지만, 이러한 활동은 한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한국교회의 사목에서 소외되었고, 언어 장벽과 과중한 생업 탓에 신앙생활에서 멀어졌고, 개종하거나 아예 냉담자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코스트홀 소성당)과 부산교구의 화교 성당에서 중국어 미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화교 신자들이 타향살이에서 무력함을 경험했고, 삶의 어둠 한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국어로 미사를 드리면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며,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한 중국인들이 전례에 더 잘 참여하고, 한국교회, 나아가 보편교회와 친교하면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신앙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도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성소 여정을 돌아보며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와 하느님에 대한 신뢰, 공동체 형제들의 격려와 인내, 그리고 양들이 목자에게 돌아오는 모습에서 선교사로서 기쁨의 원천을 발견합니다. ✠

하느님의 일

국제공항이 있는 난디

정의균 가롤로 신부

수도 수바

지난 4월, 피지에 축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본회 소속 피지 출신 요완네 나이오Iowane Naio 신부가 사제품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본당(성가정성당) 신자분들과 함께 서품식에 참석하려 수도가 있는 남섬으로 떠났습니다(피지는 크게 북섬과 남섬이 있으며 필자의 본당은 북섬에 있다.-편집자 주). 100여 명이 함께 배로 이동하였는데, 일주일 여정이다 보니 다들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셨습니다. 밤에 입을 두꺼운 옷과 돗자리, 심지어 간이침대를 들고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완네 신부의 서품식을 위하여 본당 신자분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셨는데, 얼마나 우리 신자분들이 열심이신지 느껴지시죠?

한 젊은이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찰하면서 걸어가는 성소의 길은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습니다. 10여 년 동안 신학생으로 살면서 ‘정말 이 길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길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떠나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이것이 한순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뜻인지 하는 고민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라는 것이 단순히 내 의지만으로 또 가족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의 일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능력으

필자의 본당에서
실습하고 있는
요완네 나이오
새 사제와 함께



요완네 나이오 신부의 사제서품식에서
수품자에게 안수하는 필자

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신학교를 떠나려는 신학생을 하느님께서 옷깃을 잡고 놓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반대로 아락바라 버티며 신학교에 남아 있으려 해도 하느님께서 쉽게 놓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주님께 봉헌하고 살아가는 삶이 신학생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 피지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친구



필자의 본당 청년들과 함께

정의균 가롤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인천 출신이며, 2014년에 사제품을 받고 미얀마로 파견되었고, 2017년에 남태평양 피지 공화국으로 발령받아, 인도계 피지인 사목을 하였다. 현재는 피지의 북쪽 바누아 레부 섬 람바사 시에 있는 성가정 본당 주임신부로 사목하고 있다. 본회 오세아니아지부 참사위원을 맡고 있다.

는 성소에는 관심이 많은데 학교를 마치지 못해서 안타깝게 성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성소에 관심이 많았으나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한 번, 두 번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제를 희망하는 이곳 피지 청년들을 보면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됩니다.

서품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에서 한 청년이 물었

습니다. “신부님, 혹시 저도 선교사제가 될 수 있을까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과 어둠 속 망망대해를 가르는 배 위에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이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청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청년의 눈을 바라보니 별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앞으로 며칠 아니 몇 달, 몇 년을 고민할 것입니다. ‘정말 이 길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길인가?’ 하면서 말이죠.

하느님의 선교 사명에 참여하는 우리 골롬반 선교사들을 보고 누군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하느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 성찰해 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

무지개 길 여정

이정락 베라노



저는 FMA(First Missionary Assignment)라고 하는 첫 해외선교 발령을 받아 페루에서 2년간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저는 리마, 침보테, 사만코, 야냐오카 등 골롬반회가 활동하는 페루의 여러 지역에 가서 그곳의 역사, 문화와 환경, 삶의 방식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리마에 있을 때는 로스 올리보스 지역에 위치한 <목주의 성모> 공소에서 1년 정도 활동하였고, 본당 바깥으로는 교정시설을 방문하고, HIV 감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페루 쿠스코에 있는 무지개산. 빙하와 흙이 만나 다채로운 색을 띠게 되었다. 사진 제공: 자원사제 부재환 프란치스코

페루를 떠올리면, 저는 먼저 쿠스코에 있는 비니쿤 카산이 생각납니다. 무지개산이라고 불리는데, 안데스에 사는 케추아족 말로는 “일곱 색깔 산”입니다. 산 위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 땅속 광물질과 섞이면서 토양 성분에 따라 여러 색으로 변해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산은, 한 나라에 해안, 사막, 열대우림, 고원-안데스산맥 등 여러 기후와 환경, 문화와 언어와 생활 방식을 지닌 페루를 잘 표현하는 곳 같습니다. 무지개 같은 나라, 페루는 각기 다른 색깔과 향기를 뿜어내는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무지개산을 보기 위해서는

이정락 베라노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생.
대구 출신이며, 2017년 입회했다.
2년간 페루에서 첫 선교를 하고
올해 돌아와 서울 가톨릭 대신학교에
복학했다. 11월에 있을 중신서약과
부제서품식을 준비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봉사할 때



리마 로스 올리보스 지역의 <목주의 성모> 공소 성가대원들과 함께. 뒷줄 가운데가 필자이다.

정류장(해발 4,650m)에서 내려 약 4km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멀지 않은 길이지만, 고산병 때문에 2시간 까지도 걸립니다. 어떤 이들은 구입한 산소를 마시면서 걷고, 말을 타고 올라가거나 다른 이의 부축을 받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1분 걷고 1분 쉬기를 하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산길에서 만난 대부분 사람은 처음 본 사이지만, 고산을 걷는 어려움을 알기에 서로 격려해 줍니다. 가다가 멈추어 쉬면서 초콜릿이나 물을 나누고 담소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색깔의 방식으로 무지개빛 산을 오르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는 선교의 삶이 고산을 걷는 여정과 닮았다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선교의 삶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곳과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 안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삶이란, 힘든 이를 보면 도와주고 자기가 힘이 들 때면 잠깐의 쉼 안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걸어갈 힘을 얻으며,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페루에서 저는 무지개와 같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만난 분들이 가슴에 남습니다. 처음 그곳에 방문할 때만 하더라도, 저

는 긴장한 채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갈수록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긴장과 두려움이 어느덧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지 못한 분들,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분들, 자신을 돌봐주거나 연락할 이가 아무도 없는 분들, 돌보아야 할 자녀나 병든 가족을 홀로 남겨 두고 온 분들 등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나눔 안에서 저는 그들 또한 하느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울고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삶의 고충과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그분들과 헤어질 때 제게 해주었던 말 중에, 다시 자신들을 찾아오는 선교사나 성직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 아직도 맴돕니다. 서품을 받고 제가 남미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다시 그분들을 찾아가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해봅니다. ✠

한인들의 벗, 그리운 홍 야고보 신부님

천상인연 긴 교회세월 되어가는
찢힌 눈물 속에 흥조웃음 갇어진 연민
아직 못 전해드린 감사와 사랑
그 여운이 내 가슴을 아리아리하게
다정하심 생생히 스쳐오니
구슬픈 아리랑 곡조가 나 모르게

가이없는 사랑의 아버지
여정의 동반자, 아름다운 벗
뒷자취 조심조심 따라가고픈데
고해소부터 가야 할 양심 내 발목 잡네
행여나 내 영은 숨죽여 즐거이
순백의 그림자 빛 따라

예수님 닮고파 예수님처럼
우리네 삶의 쉼터 고즈넉한 위로처
우리 힘들어 지쳐 또 넘어지면
그곳 다시 찾을 텐데 당신 계실까
고운 님 고운 모습 마음에 새겨
내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예수님 뵈러 가신 예수님의 야고보
하늘 나라가 너무 잘 어울려
가슴 깊이 간직했던 천상선물 이름소쿠리
그곳에서 우리 이름 불러 주실까
나중에 고운 님 만날 때 감사선물
내 소쿠리 무엇을 담아야...



故 홍 야고보 신부(1928-2024)
2016년, 홍 야고보 신부의
영명축일을 맞아 시드니 한인천주교회에서
축하 미사를 드렸을 때
사진 출처: 시드니 한인천주교회 홈페이지

“
한국에서 40년 동안 활동했고,
호주에서 한인 교포 사목을 했던 홍 야고보 신부가
6월 14일 호주에서 선종하셨습니다.
고인과 30년 가까이 함께해 왔던
호주 시드니 한인천주교회에서 보내준
그곳 교우(익명)의 추모 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

다정하신 홍 야고보 신부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부님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아리랑 곡조가 먼저 떠오릅니다. 한국인들을 위해 60년을 넘게 봉사해 주신 홍 신부님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사 인사와 사랑의 표현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힘들 때, 삶에서 힘들어 고해소로 가면, 항상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또 그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참 좋아 하셨습니다.

항상 하늘 나라 사람처럼 보였던 신부님, 그 많은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며 기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릴 위해 또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오랜 세월 함께해 주신 아버지 같은 신부님, 우리도 신부님처럼 잘 살아 주님께 바치는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부님의 많은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턱없는 글이지만 신부님의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호주 출신 탁 벨라도 신부(한국지부)가
작년에 홍 야고보 신부를 만났을 때

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으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신부님과의 추억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보잘것없는 글을 써봅니다. ✠

홍 야고보 신부의 약력은 34쪽에 실었습니다.

문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02-929-1366
이메일: ksfund@columban.or.kr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062-371-5824
이메일: kjfund@columban.or.kr

「골롬반선교」 잡지는 연 3회 발송(4, 9, 12월 예정)하며 이때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께 지로용지를 동봉합니다.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지역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 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24년 9월 -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 소	문 의
서울(명동)	6일	4일	1일(미정)	6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서울(돈암동)	27일	25일	29일	27일	돈암동 본부	032-529-9621
인천	10일	8일	12일	10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1일	9일	13일	11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3일	11일	8일	13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7일	25일	22일	27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4일	22일	26일	-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5일	18일	27일	-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6일	24일	28일	-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7일	25일	29일	-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2일	-	-	12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25일	16일	20일	-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제주	24일	-	19일	-	서귀 복사 성당	064-733-5523
	-	15일	-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서울 피정 11월 1일(금) 오전 10시~ 오후 4시
(명동가톨릭회관 1층)

•원주 10월 한글날(9일)에 미사 있습니다.

•목포, 순천, 전주, 광주 10월 피정 예정, 12월 미사 없습니다.

•제주 9월 미사는 추석 연휴로 한 주 미뤄집니다.
12월 사제관과 서귀포 성당 미사 없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온라인 신청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골롬반 소식

본회 총본부 새 리더십 팀 선출

페루 리마에서 열렸던 본회 세계 총회(5/19~6/14)에서 신임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총장에 필리핀 출신 안드레이 파즈 신부(2009년 서품, 대만과 중국서 활동), 부총장(제1 참사)에 호주 출신 피터 오닐 신부(1990년 서품, 대만과 호주서 활동)가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가 제2 참사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서품돼 페루 안데스에서 사목하다가 2021년부터 한국지부 신학원장을 맡았던 김 신부는 전임 강승원 요셉 신부 이후 두 번째 한국 출신 참사가 되었습니다. 제3 참사에는 페루 출신 살루스티노 몬드라곤 신부(2017년 서품, 대만에서 사목)가 뽑혔습니다. 이들은 6년 동안 홍콩에 있는 총본부에서 일하며 새로운 변화의 여정을 걷는 본회를 위하여 봉사할 예정입니다.

관련 글 4쪽~13쪽



왼쪽부터 김영인 신부, 안드레이 파즈 신부, 살루스티노 몬드라곤 신부, 피터 오닐 신부

지원사제 대전교구 박상호 신부, 서울대교구 양용석 신부 교구 복귀

본회 지원사제로서 2018년 페루에 파견되었던 박상호 안드레아 신부(대전교구),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서울대교구)가 6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박상호 신부는 안데스에서 원주민사목을 하였고, 양용석 신부는 수도 리마 외곽에서 본당사목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다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두 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욱 신학생 파키스탄으로 파견

필리핀지부 김진욱 사도 요한 신학생이 첫 해외선교 발령(FMA)을 받아 2년 여정으로 파키스탄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서울 출신인 그는 필리핀 마닐라 예수회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있었으며, 선교사로서 첫 파견을 받고 8월 8일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두고 한국지부 본부 성당에서 김진욱 신학생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한국지부장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는 “파견은 단순히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총에 감사드리는 의미”라고 격려하면서 선교사들과 함께 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골롬반 소식

미얀마와 피지의 골롬반회 사제 탄생을 축하합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응브위 라 아용 신부가 5월 1일,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카친 출신인 하비에르 신부는 본회가 미얀마에 진출한 지 98년 만에 탄생한 첫 미얀마인 골롬반 회원입니다. 또, 4월 10일에는 피지 출신 요완네 나이오 신부가 수도 수

바 대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이들을 골롬반 선교사제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복된 사제 탄생을 함께 경축합니다.



사제서품식 때의 응브위 라 아용 신부



첫 미사를 집전하는 요완네 신부

하느님의 종 진 야고보 신부 순교터 축복 및 동상 제막식

원주교구는 7월 4일, 성내동 본당(주임 윤종민 안토니오 신부) 주관, 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주례로 진 야고보 신부가 순교한 장소(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40-2)에서 순교터 축복식 및 동상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순교터에는 진 야고보 신부 동상, 순교 기념비, 12사도 제단, 십자가의 길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조규만 주교는 진 야고보 신부의 시복시성(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을 기원하면서 “신자들을 피신시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인이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희생을 하는 존재라는 점을 알게 된다”고 강론했습니다. 축복식에 초대받은 한국지부장 서경희 스



테파노 신부는 “진 야고보 신부님의 ‘용기 있는 삶’은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고 용기 있는 대화와 행동을 실천하려는 골롬반회에 모범이 되시며 선교사로서 순교자가 될 마음을 다시금 다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 야고보 신부는 성내동 성당 재임 시절인 1950년, 피살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들과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았다가 주일미

사 직후 북한군에 체포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배교를 강요받았으나 끝까지 신앙을 증언했고, 7월 4일 밤, 삼척 자원동 하천변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사진 제공: 이옥분 후원회원



골롬반 소식



노 노엘 신부, 홍 야고보 신부 선종

한평생 하느님의 충실한 사제로 살다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간 두 사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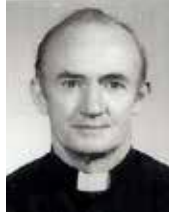


노 노엘 신부
Noel James Daly

원주교구에서 사목했고, 한국지부 부지 부장을 역임했던 노 노엘 신부가 6월 25일, 아일랜드 달간파크 요양원에서 선종했습니다. 향년 83세.

원주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가톨릭센터 교리교육 연구소 책임을 맡아 교안,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각 본당에 보급하는 데 크게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본회 총본부 교육 담당으로도 11년간 일하면서 특별히 선교지 출신 성소자를 받을 준비와 양성 프로그램 설계를 맡았습니다. 이후 아일랜드지부의 홍보, 행정을 맡아 30년 동안 책임을 다했습니다. 2023년 1월, 갑자기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그는 평생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환대하는 최고의 골롬반인이었습니다.

1940년 12월 25일 아일랜드 오펔리 주 툴라모어 출생
1958년 9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입회
1964년 12월 21일 사제수품
1965년 한국 도착
1967년 원주교구 삼척 성내동본당 보좌
1968년 원주교구 태백 황지본당 주임
1971년 원주교구 정선 함백본당 주임
1972년 원주교구 가톨릭센터 교리교육 연구소 책임
1977년 한국지부 부지부장 겸 신학생 (한국 선교) 실습 프로그램 담당
1983년 총본부 교육 담당(신학생 양성 프로그램 설계)
1994년 아일랜드지부 매니저
2024년 6월 25일 선종, 아일랜드 달간파크 성 골롬반 묘원 안장



홍 야고보 신부
James Edward Duggan

한국에서 40년 동안 활동했던 홍 야고보 신부가 6월 14일, 호주 시드니에서 선종했습니다. 향년 96세.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국으로 파견돼 강원도에서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춘천교구, 원주교구, 서울대교구, 의정부교구의 본당에서 사목하며 본당 2곳(원주교구 단구동, 의정부교구 금곡동)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1997년 고국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는 시드니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초창기부터 동반해 왔으며, 마지막까지 한인들과 함께하며 평생 한국인들의 벚으로 살았습니다.

1928년 9월 4일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출생
1949년 2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입회
1955년 12월 14일 사제수품
1956년 10월 한국 도착
1957년 춘천교구 흥천성당 보좌
1957년 원주교구 원동주교좌성당 보좌
1961년 원주교구 단구동성당 주임(본당 설립)
1964년 춘천교구 강릉 갈바리의원 원목
1967년 춘천교구 간성성당 주임
1969년 춘천교구 가평성당 주임
1978년 서울대교구 창동성당 주임
1983년 서울대교구 묵동성당 주임
1987년 의정부교구 구리성당 주임
1991년 의정부교구 금곡성당 주임(본당 설립)
1997년 호주에서 활동, 호주 한인 공동체 동반
2024년 6월 14일 선종, 호주 시드니 필드 오브 마스 묘원 안장

9월부터 열린미사, 격월로 진행

상반기에도 열린미사에서 뜨거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4월부터 석 달 동안은 본국 휴가를 온 권태문 신부가 열린미사를 맡았고, 이어 중국 출신 동리춘 베드로 신부가 처음으로 열린미사를 주례했습니다. 국제 선교회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열린미사는 나이, 종교 등 상관없이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이를 초대합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선교 체험, 선교지 문화와 만남, 성소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한 대화 시간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월 하던 열린미사는 9월부터 격월로 진행하는데, 9월 28일(토) 미사는 칠레에서 온 권세오 곤잘로 신부, 11월 23일(토)에는 아일랜드 출신 오기백 다니엘 신부가 함께합니다. 미사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서울 골롬반선교센터 강당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02-926-1217, columban@columban.or.kr

사제서품식과 부제서품식에 초대합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의 세 부제가 사제품을 받고, 같은 날에 신학생 1명이 부제품을 받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에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자 서약하는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수품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제서품식 및 부제서품식

일시(예정) 2024년 11월 15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례 이경상 바오로 주교(서울대교구)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SNS를

이용해
주세요!

선교 정보, 만나고 싶은 선교사 소식 등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성소 담당 사제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후원 및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오니 홈페이지에 자주 둘러 주시고, SNS 친구가 되어 이웃과 젊은이들을 골롬반 선교로 초대해 주세요!

홈페이지 한국지부 www.columban.or.kr

총본부 www.columbanmission.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columban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olumban_korea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tcolumbankorea_1918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검색

카카오톡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검색 또는
QR코드 촬영 ⇨ 채널 친구 추가



골롬반 선교

2024 여름 + 가을

vol.128



사진 제공: 알바로 마르티네즈 신부

표지 이야기

올해 선출된 본회 총장, 참사단과 평신도선교사 중앙 리더십 팀이 페루에서 열렸던 세계 총회를 마치고 본회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보낼 사진을 찍었다. 새 지도부의 출신 국가는 페루, 필리핀, 한국, 호주인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 국가, 문화, 성별, 언어, 나이, 신원, 활동지가 다양한 골롬반회의 특성을 한 눈에 확인한다. 생김은 다르지만 이들의 미소가 닮아 보이는 건 성령께서 골롬반회를 "선교하는 기쁨"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제호 서체: 완도희망체

편집실 Tel. 02-927-2705
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s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주소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발행일 2024년 9월 1일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발행인 서경희 신부

편집위원 권은정

이지영 선교사

번역 권태문 신부

취재편집 김명기, 김소영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인쇄 서울프로아트



7월 말부터 1년간 영성의 해에 들어간(왼쪽부터) 원장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본회 신학생 키리바시 출신 에타와, 필리핀 출신 나담, 피지 출신 피오, 부원장 크리스토퍼 카미노 신부. 펼쳐 든 그림에는 이 수련 과정을 시작하는 각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해외선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 골롬반을 본받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문화 속에 살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정의를 위해 투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
이 삶은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또 내가 응답해야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십시오.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35세 이하인 젊은이

문의 권세오 곤잘로 신부

vocation@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주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